

[찬송의 이유]

2020.04.12

엡 1:3-14

정성록 목사님

엡 1:3-14

-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 ♣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인들에 있기를 원한다는 라는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엡 1:3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한다.
- ♣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한다.
- ♣ 원문을 보면, 엡 1:3-14까지 한 문장으로 적혀 있다.
- ♣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 ♣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
- ♣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그 문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 ♣ 바울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 ♣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 ♣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 ♣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 ♣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도 있다.
-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
- ♣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주요한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 신구약 전체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언제나 방황했다.
-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 ♣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 ☞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 우리의 눈이 열려 져야 하고, 우리의 시각이 넓혀져야 한다.
- ☞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를 바로 알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호 4:6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 ☞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 ☞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잠 29:18

18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 ☞ 목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 ☞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 ☞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하셨다.
- ☞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요 17:3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 ☞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복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 ☞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 ☞ 칼빈이 말하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했다.

렘 9:23-24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다.
- ☞ 바울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경험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한 역사를 보므로,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 원래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기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자이다.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쟀던 사람이다.
- ☞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 ☞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울이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받

견하고, 눈을 뜨게 되었다.

☞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앱 1:3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감격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다.

☞ 우리가 찬송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복] 때문이다.

☞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인가?

☞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며,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신령한 복이다.

☞ 바울은 [하늘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에 집중하고 있었다.

☞ [하늘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다.

☞ [하늘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하늘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았다.

☞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보인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복을 깨달았을 때,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복이다.

☞ 우리 안에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

☞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셨다.

☞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 앱 1:4에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신다.

앱 1:5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다.

앱 1:6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신다.

앱 1:8에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신다.

앱 1:9-10에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 주셨다]라고 하신다.

앱 1:11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신다.

☞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 갈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린다.

☞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다.

☞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

☞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품으셨다.

- ♣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 ♣ 성경에서 우리를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붙잡고 승리하게 된다.
- ♣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 ♣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 ♣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 ♣ 이방인이며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그 답은 창 15:1에 있다.

창 15:1

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 ♣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 ♣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
- ♣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 ♣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지위와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 ♣ 이 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 ♣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도敬畏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복을 누리는 자이다.
-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환경에, 상황에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 ♣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가?
- ♣ 갑자기 주신 복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수로 주어진 복이 아니라,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다고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 ♣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셨다는 내용은 골 2:2-3에 있다.

골 2:2-3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 ♣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 ☞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서 우리에게서 찬양이 올라오게 된다. 찬송이 올라오게 된다.
- ☞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복 주심을,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 ☞ 롬 5:5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음을 알려주신다.

롬 5:5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그 비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 ☞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 ☞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는 [하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 ☞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출신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위와, 행위와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 취소할 수 없는 복이 나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이 되는 것이다.
- ☞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시 23:1

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야 나의 복이시니 그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이다. 다윗이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심은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 ☞ 엡 1:6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도,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찬송하기 위해서이다.
- ☞ 엡 1:1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
- ☞ 엡 1:14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다.
- ☞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다.
- ☞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내면 안에 와 있다면, 어떻게 그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 ♣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여야 할,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
- ♣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았다.
- ♣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 ♣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 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 ♣ 하나님은 찬송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 ♣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
- ♣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가?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자리로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여야 할 목적이다.
- ♣ 헨리 나우웬(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이 케나다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수용 기관에서 25세 중증지체장애인이던 아담이라는 청년을 10년 동안 돌보고 있을 때 어느 분과 대화 중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한 말이다. "지체장애인이던 25세의 젊은 아담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고 있다네. 어떡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고,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깨달게 되었다네."라고 하였다.
- ♣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
- ♣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른다.
- ♣ 바울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모두 주시는 그 감격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복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 ♣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 ♣ 찬송은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의 시각이 열려질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 ♣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영원토록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 ♣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보인다.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때가 있다. 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섬기고 배려해야 할 때가 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는 것이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 ♣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아라.

요점

- ☞ 바울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모두 주시는 그 감격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복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 ☞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영원토록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 ☞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보인다.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때가 있다. 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섬기고 배려해야 할 때가 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는 것이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 제목

- ☞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미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적용

- * 일 주일에 찬송 또는 찬양을 하나씩 배워야 겠다.
- * 찬송 또는 찬양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 또는 찬양의 각 소절의 뜻을 생각하며, 가슴으로 부르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는 찬송 또는 찬양이 되도록 하여야 겠다.